보도자료	보도일시	2026. 11. 26.(목) 16:00부터
	담 당 자	손재희 연구위원 (02-3775-9023, jaehee.son@kiri.or.kr)
	홍보담당	변철성 수석역(02-3775-9115)
	매 수	총 4매

보험연구원, 세미나 개최

「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6」에서 「AI와 보험 공존을 위한 방안」

- 일 시 : 11월 26일(목) 16:00~17:00
- 장 소 : 양재 aT센터

AI의 역할이 보조에서 실행으로 바뀌는 시대에, 맡긴 뒤에도
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보험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임

○ **보험연구원**은 국내 최대 핀테크 행사인 「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6」를 맞이하여 **11월 26일(목) 오후 4시**에 "AI에게 무엇을 맡길 것인가? 보험산업 전환의 조건"이라는 주제로 **세미나를 개최**함

• 세미나는 양재 aT센터에서 진행되고, 무료로 참석할 수 있음

< 세미나 개요 >

1. 일시 및 장소: 11. 26(목) 16:00~17:00 / 양재 aT센터 서브무대 (1F)
2. 발표주제(발표자):
   - **위임의 경계를 어떻게 긋는가?: 세 개의 시선**
     (정윤호 대표, 이승준 수석, 손재희 실장)
3. 토론:
   - 박소정 교수(좌장, 서울대학교), 정윤호 대표(해빗팩토리), 이승준 수석(DB 손해보험), 손재희 실장(보험연구원)

○ (메인 토론/발표 1) **정윤호 대표는 'Agentic AI 시대, 인슈어테크의 전략'**이라는 주제로 판매 과정을 업무 단계별로 분해해 AI와 사람의 역할을 나눈 경계 설계와 위임의 판단 기준을 소개함

- 기존 보험회사가 설계사 조직과 직무를 출발점으로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반면, 해빗팩토리는 판매 과정을 처음부터 단계별로 나누어 단계마다 시스템과 사람의 몫을 설계함
- AI에게 맡기기 전에 ① 되돌릴 수 있는가, ② 근거를 보여줄 수 있는가, ③ 측정할 수 있는가, ④ 누구의 행위인가라는 네 가지를 위임 기준으로 제시함
- 보험상품 제조 및 인수를 직접하는 보험회사와 상담과 판매를 맡아 하는 인슈어테크는 각기 전략이 다르지만 책임의 경계, 판단 근거의 추적, 고객 데이터 보호, 불완전 판매 방지는 모두의 공통 과제임을 설명함
  - 보험 밸류 체인 과정 내 AI Agent 위임에 앞서 데이터 기반의 구축, 사람 판단의 기준화, 판단과 설명의 분리가 선행되어 한다고 강조함

○ (메인 토론/발표 2) **이승준 수석은 'AI 위임의 경계와 판단 기준'**이라는 주제로 전통 보험회사의 업무 유형별 AI 위임 범위와 판단 기준, 운영상의 핵심 난제와 대응 방안을 소개함

- 보험회사는 판단 지원과 검증을 AI에게, 고객 권리에 영향을 주는 최종 의사결정은 직원이 내리도록 위임의 경계를 정하고 있으며, AI를 설계사·손해사정사의 인력 대체가 아닌 생산성과 정확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함
- 고객 권리와 보험금 지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 기준으로, 검증 가능성과 책임 소재를 보조 기준으로 삼아,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AI 위임을 줄이고 직원의 개입을 늘림
- 핵심 난제로 '직원이 최종 결정한다'는 원칙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것을 꼽고, 위임 경계를 정하는 것보다 운영 중에 지켜나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지적함

○ (메인 토론/발표 3) **손재희 실장은 '보험산업 AI 위임의 공통 기준'**이라는 주제로 보험회사와 인슈어테크를 아우르는 AI 위임 기준을 제시하고, Agentic AI에서 책임 원칙이 약해지는 지점을 진단하고 보완 장치를 제안함

- 보험회사와 인슈어테크는 사업의 출발점, 위험 보유 여부, 채널의 이해관계에 따라 AI에게 맡기는 범위가 다르지만, 결국 어느 쪽이든 책임은 사람에게 남음
  - Agentic AI는 기술적으로 판단과 실행까지 할 수 있으므로, AI에게 어까지 맡길지를 정하는 것은 기술의 한계가 아닌 선택의 문제가 됨
- AI 오류의 피해는 결국 고객이 입고 그 크기는 어느 회사든 유사하므로, 소비자 보호 수준도 같아야 하며, 위임을 판단하는 **공통의 잣대는 '오류가 발생해도 그 결과를 통제하고 회복할 수 있는가'가 되어야 함**
  - **'영향도·비가역성, 검증·설명 가능성, 정형성'으로 판단한 업무의 위험도가, '책임 주체 지정, 중단·원상 회복 절차, 이의제기 창구 및 기록·모니터링' 등 조직의 감당 능력** 안에 있을 때 AI에게 맡길 수 있음
- Agentic AI가 고도화될수록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조건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, 이를 보완할 장치를 마련하고 사람이 실제로 판단하고 개입하는지 확인할 지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

▣ 첨부 : 「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6」 개최 안내

[붙임] 「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6」 개최 안내

○ '26.11.25(수)부터 11.27(금)까지,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인 「코리아 핀테크 위크(Korea Fintech Week) 2026」가 서울 aT센터(양재)에서 개최된다.

○ 「코리아 핀테크 위크」는 핀테크 관련 AI 기술 등 혁신기술 트렌드를 교류하고 투자 유치의 장이 되는 국내 최대 규모*의 핀테크 축제이다. 올해는 "다음 금융은 이미 시작됐다"를 주제로,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현을 선도하고 금융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.

<개요>

■ **일시/장소 : ' 26.11.25(수) ~ 11.27(금) / aT센터(양재)**

■ **주제** : '다음 금융은 이미 시작됐다'
(Beyond Finance, Into the Future)

■ **주요일정**

- **[1일차 정책 공유 Day]** 개막행사, 정책설명회,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 등
- **[2일차 비즈니스 Day]** AI 관련 각종 글로벌 기술 트렌드 공유, 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, 핀테크 투자·네트워킹 행사 (테크파인더(Tech-Finder) 등
- **[3일차 국민 참여 Day]** 핀테크 금융권·현직자·취업 멘토링, 생활투자 핀테크 서비스 소개, 디지털 자산의 투자 전망과 전략 등
- **[상 시]** 핀테크·금융회사 전시관, 비지니스 밋업, 투어 프로그램, 체험 프로그램 등